

장흥서도 '도가니 사건' 충격

한 마을 주민 수십명이 지적장애 여성 수년간 성폭행

검찰, 4명 기소·10여명 수사... 관계자 "100명 이상 연루"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장흥군의 한 마을 주민 수십명이 지적장애 여성 한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마을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묵인해 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올 초 뒤늦게 수사에 나서 4명을 기소하고 10여명을 직접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1년 동안 피해여성을 보살피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3년형이 확정돼 복교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18일 오씨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같은 마을 주민이 자 친척인 이모(58)씨를 성폭력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슈퍼를 운영중인 주민 윤모(71)·위모(77)씨는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마을 주민 2명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다른 관련자 5명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피해자가 다

던 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피해자가 여성 지적장애인이었다는 점을 악용해 중학생 때인 7~8년 전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신연령이 7세 정도인 피해자가 겁이 많고 군것질을 좋아하는 심리를 이용해 폭행을 가하거나 과자 등으로 유인한 뒤 자신들의 집이나 컨테이너, 축사, 가게 등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주민들은 서로 이 같은 사실을 쉬쉬하며 사실상 묵인해 연루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부터 피해자를 돌보고 있는 복지시설 소장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며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지적장애 여성도 같은 가해자들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손바닥만한 딸에게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끝까지 사실을 밝혀 범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주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마을 주민 수십명으로부터 수년간 성폭행을 당한 장흥군 관산을 피해 장애여성의 집에서 19일 오후 가족이 광주일보 취재진에게 사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 새 시대 열었다

제1회 무등기 폐막



"우리가 야구왕" 20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천왕리그 결승전에서 페가수스가 디스커스를 2-1로 꺾은 뒤 행가래를 치며 우승을 자축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사회인야구의 새 시대를 연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광주일보가 주최한 '제 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가 20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천왕·지왕·인왕 리그 결승전을 끝으로 3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 했다.

〈관련기사 16면〉

지난 9월18일 시작된 열전의 무대는 천왕리그 '페가수스', 지왕리그 '세한기업 재규어스', 그리고 인왕리그 '아도니스'의 우승으로 끝났다.

페가수스는 디스커스와의 경기에서 정동준의 끝내기 안타로 2-1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천왕리그 초대 우승팀에 올랐고, 재규어스는 13-4로 슬러거스를 꺾고 지왕리그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아도니스는 블루삭스를 13-9로 꺾고 인왕리그 정상에 올랐다.

유재철 광주일보 사장은 폐회사에서 "지역 사회인 야구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첫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최선을 다해 열전을 펼친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대회를 더 확대해 지역 사회인 야구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KIA 타이거즈 후원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천왕리그 16개팀, 지왕리그 17개팀, 인왕리그 18개팀 등 총 51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다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법인 허가 취소...인화학교 사태 6년만에 일단락

재산 57억 광주시 귀속
14명 입건 수사 마무리

광주시가 영화 '도가니'로 전국을 들쭉이게 했던 광주 인화학교 운영법인의 허가를 취소하면서 인화학교 사태가 발생 6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경찰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성폭행과 강제 추행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14명을 형사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 했다. 〈관련기사 3면〉

강운태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지난 18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운영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사태에 대해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자진 해산 및 재산 증여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인허가 취소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 재산 약 57억 원은 광주시에 귀속되고, 시는 인화학교 등 시설물을 시 교육청 직영 특수교육관련 공공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법인을 취소할 경우 해당 법인의 행정소송 등이 우려됐지만, 법인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광주시에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인화학교 문제가 6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4년 원생 A(당시 17세)양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강간치상)로 교직원 B씨와 2005년 A양을 강제추행하고 돈을 주겠다고 성매매를 제외한 교사 C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신대학교
프레이즈 페스티벌
가스펠 찬양대회 3rd.
예 선 : 2011년 12월 3일(토) 오후 1시
2011년 12월 10일(토) 오후 2시 본교 문화관 3층 대예배실
참가신청 : 2011. 11. 7(월) ~ 25(금) *참가문의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 062)605-1130
입학 문의 : www.kwangshin.ac.kr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우암학원 창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CCTV관제센터·총인시설·U대회 선수촌 재건축

광주시 사업 줄줄이 법 심판대에

회정주공 조합장 소환조사

광주시가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대부분 공사계약 과정에서의 비리나 불공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기관의 공신력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터키(설계·시공 일괄임찰) 방식이나 최저입찰가경쟁방식 등 공사·용역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20일 "광주시 서구 회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 조합장인 정모(54)씨를 지난 주말과 휴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조합장을 상대로 지난 2007년 조합추진위 구성부터 5년간 조합과 관련 업체의 금품거래

내역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광주지법 민사10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CC(폐쇄회로)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입찰절차의 불공정 시비와 관련 (주)KT가 시를 상대로 낸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인재 육성의 모험 - 광남고등학교!

광남고등학교 지역 인재 육성 프로젝트 - 반드시 실천하여 학부모님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신입생 희망자 전원 기숙사 입사
(현대식 오피스텔형 기숙사 신축 완공)

- 3년간 전액 장학금 지급 및 기숙사 숙식비 제공
- 중학교 내신 1%미만 신입생 전원
- 3년간 생활지도 및 학력향상을 위한 책임교사제 운영
- 교사와 학생 1:1 맞춤형 개별 지도

- 개인별 맞춤형 진학지도 프로그램 운영
- 상위권 대학 합격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활용한 입시전략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기간 : 2011.12.01~2011.12.06
- 전형일 : 2011. 12. 21(수)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향교길 19 교원리 216-2 (광주에서 10분 거리)
- 문의전화 : (061)331-0807~8, 337-0809

광주·화순 통학버스 운행!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대학 광남고등학교가 책임지도 하겠습니다.

www.gwangnam.hs.kr **광남고등학교**